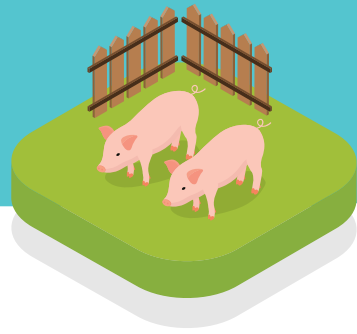


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



아프리카돼지열병(African Swine Fever)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**치사율이 최고 100%**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. 우리나라는 **제1종 가축전염병**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**휴대·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**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.

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'18년 중국에서 발생한데 이어 '19년에 몽골 및 베트남에서도 발생하는 등에 따라, 아프리카돼지열병의 **국내발생 예방**을 위해 다음의 **비상 행동수칙**을 발령하니,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첫째



양돈농가는 축사내외 **소독실시**,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,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**차단방역을 철저히**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둘째



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**열처리(80℃ 30분)** 등 적절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.

셋째



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**여행을 자제**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**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**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넷째



양돈농가·양돈산업 종사 **외국인근로자**는 자국의 **축산물을 휴대와 우편**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섯째



양돈농가는 매일 **임상관찰**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**발생국 여행자제**와 여행국에서 **축산물을 휴대**하여 **국내에 반입**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